

올 수능 응시자 4만6천명 감소

2020 수능 응시원서 접수결과

‘재도전’ 출업생은 6800명 ↑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생이 지난해보다 무려 4만 6000여명 줄었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재수 이상 수험생이나 반(半)수생 등 출업생은 전년도 대비 6800명 가까이 늘고 비율도 증가했다. 이는 최근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점, 서울 주요대 정시모집 정원이 올해부터 증가한 점, 지난해 불수능 어파에 등이 주된 이유로 풀이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평가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0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9일 발표했다. 평가원은 지난 8월22일~9월6일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를 진행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생은 54만8734명이다. 전년도(59만4924명)보다 4만6190명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올해 수능 대상인 2001년 생은 56만명쯤 된다. 전년도(2019학년도)에는 2000년 출생한 ‘밀레니엄 베이비’가 수능을 치렀다. 당시 새천년에 맞춰 아이를 갖자는 이른바 ‘밀레니엄 베이비 봄’이 일면서 2000년 출생자가 약 64만명이 이르렀다.

2001년 출생자가 전년 대비 무려 8만명가량 줄어든 게 응시생 감소로 이어진 셈이다. 실제로 올해 고교 재학생 응시생은 39만4024명이다. 전년도(44만8111명)보다 5만4087명 줄었다.

다만 출업생 응시생은 늘었다. 올해 14만2271명으로 전년도(13만 5482명)보다 6789명 증가했다. 그동안 1000~2000명 증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었다.

이영덕 대성학력평가연구소장은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점, 서울 소재 주요대학들의 정시모집 정원이 소폭 증가한 점, 내년부터 2015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수능이 시행된다는 점 등이 상당수 출업생들의 재도전을 부추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민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전년도 ‘불수능’ 때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상당수 출업생들이 올해 수능 난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해 다시 한 번

도 도전에 나선 것으로도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성별로 보면 올해 수능 남자 응시생은 28만2036명이다. 전년도보다 2만4105명 줄었다. 여자 응시생은 26만6698명으로 역시 전년도보다 2만2085명 감소했다.

탐구영역 응시생 52만6422명 가운데 사회탐구를 선택한 수험생은 28만7737명(54.7%), 과학탐구를 선택한 수험생은 23만2270명(44.1%)이다. 직업탐구는 6415명(1.2%)이 선택했다.

비중은 전년도보다 1.8%p 늘었다.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가형(16만7467명)도 32.1%로 전년도(32.2%)보다 소폭 감소했다. 반면 인문계 학생들이 주로 보는 수학 나형(35만4984명)도 67.9%로 전년도(67.8%)보다 소폭 늘었다. 의대 정원 증가, 이공계열 학과 정원 확대 등 자연계열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것과 다른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환경’보다는 ‘입시’에 더 초점을 맞춘 결과로 풀이한다.

이영덕 소장은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영역별 등급 합 또는 특정 영역 특정 등급 기준 제시)을 둔 전형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에 더 수월한 사회탐구나 수학 나형을 택하는 경향 때문에 풀이된다”고 말했다.

탐구영역 과목별 선택 비중을 보면 사회탐구에서는 ‘생활과 윤

리’(58.7%)와 사회·문화(54.9%)를 택한 수험생들이 가장 많았다. 과학탐구에서는 ‘지구과학 I’(69.4%)과 ‘생명과학 I’(60.1%)에 집중됐다. 탐구영역은 최대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영역에서는 무려 70.8%에 이르는 수험생이 ‘아랍어 I’를 택했다. 선택 비중 2위인 일본어 I(8.8%)와 차이가 상당하다. 수험생들이 아랍어 I에 쓰리는 이유는 학생들이 잘 모르는 과목이라는 점, 상대평가 체제에서 조금만 공부해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편 올해 수능일은 11월14일이다. 성적표는 12월4일 수험생에게 배부한다. 필수영역인 한국사는 반드시 응시해야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 나머지 과목은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한다.

뉴스



복구 한창인 태풍 피해 농가

9일 오전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의 태풍 링링 피해 농가에서 농협 관계자들이 응급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경찰, 11~15일 음주운전 집중단속

광주 경찰이 추석 연휴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 최근 3년간 추석연휴 기간 발생한 음주교통사고가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93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음주 교통사고 11건이 발생해 23명의 부상자, 2017년에는 16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에는 13건이 발생해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경찰은 추석연휴인 11일부터 15일까지 음주운전 취약지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광산IC 등 8개소 광주진출입로와 광주터미널, 송정역, 서광주 농수산물시장 등 교통 혼잡지역 및 사고다발지점에 배치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특별교통관리 근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연휴 기간

음복 후 운전이나 숙취운전이 즐거운 명절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배제해 평온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광주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을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광주 지역에서는 음주단속으로 인해 면허정지 928건, 면허취소 1616건 등 총 2544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 해 1월부터 9월6일까지 3912건(면허정지 1646건·면허취소 2266건)에 비해 1368건 줄어든 수치다.

‘강력 접착제’가 주차 차량에…광주서 잇따라

광주에서 접착제로 추정되는 액체가 주차된 차량에 뿌려진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9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쯤 북구의 한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앞부분에 강력접착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뿌려져 있다는 60대 차주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CCTV와 주차 차량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1시쯤 북구 모 원룸 주차장에서 외제차량의 30대 차주가 차량 윗부분에 페인트로 추정되는 접착 성분 물질이 뿌려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차량은 도색 등을 통해 수리비 7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성서 전기 공급 고압전선 끊기며 화재

보성에서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고압전선이 끊기는 사고가 났다.

9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16분쯤 보성군 보성읍의 한 전신주에서 수력발전소에 전기를 공급하는 공중고압전선이 절리되는 사고가 났다.

고압전선이 절리며 뒤긴 불꽃으로 화재가 발생, 전신주 선 일부가 불에 타고 10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소방당국 등은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심하게 흔들린 전선이 태풍이 지난 오후에도 지속된 강풍을 견디지 못하고 끊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단선된 고압전선은 고객 전용 선로로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인근 수력발전소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주택가에서 사용하는 선이 아니라 다행히 정전 등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화재 진압 직후 복구를 완료해 빌전소 피해는 크지 않았다”고 밝혔다.

물컵에 남긴 지문…7개월만에 잡힌 전과 12범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절도 행각 피의자가 범행 현장의 물컵에 남은 지문때문에 7개월만에 검거됐다.

9일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PC방과 노래방 등에서 손님과 업주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6)를 붙잡아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5시쯤 광주 서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손님 외투에서 현금 6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도주 중이었다.

경찰은 A씨가 마신 음료수병에서 DNA를 채취했지만 수개월간의 탐문수사에도 불구,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6월18일 노래방 카운터에서 현금 20만원과 신분증이 든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지문과 DNA를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다.

경찰은 이날 또 다른 노래방에 A씨가 다녀갔다는 진술을 확보, 해당 노래방에서 A씨가 마시고 남긴 물컵에서 지문과 DNA를 채취했다.

A씨가 지난 2월 미제 사건 용의자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7개월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7일 오후 9시15분쯤 광주 서구 A씨의 거주지에서 피의자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전과 12범으로 또다른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대전, 통영, 여수, 광주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금품을 빼치는 등 여죄 8건을 추가 확인했고 A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봉우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